

시인의 마을



낯설지 않다

시詩를 담다 Ⅱ

는 일 없이 푸석푸석, 발길을 옮
기면 옮길수록
아무리 낯설게 하려
해도 낯설지 않다
뒤통, 뒤통, 바보처럼, 혼잣말만
중얼거린다
허송세월(虛送歲月)이 낯설지
않다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눈이
쌓여 무아지경이다

- 박여범 시인 '낯설지 않다' 전문 -

어느 날인가, 푸석푸석 마냥 걸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 있다. 딱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어도 친숙하다. 눈에 익어 반갑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공감과 추억을 남치고 넘쳐난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만 하얗다.
그렇게 2022년 첫 번째 달의 어느 날에 목포도 없이 마을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정겹고

익숙한 그림을 눈에 담았다. 마음에만 담아두기에는 어질픈 감정 때문만은 아니다.
'낯설게 하기'란 '친숙하거나 익숙화된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주변을 돌아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것들과 눈을 맞추며 살아보자.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담아 보자. 그리고 살포시 다가올 여유와 행복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짜릿한 포옹을 함께 나누자.



박여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설

전북 교육의 미래상

전북 교육의 미래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필요하다.
가능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 교육에는 다양한 교육 과정, 분야별 전문가, 교육시설 등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교육 인프라 제공과 적극적인 교육 복지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한다.
학생인구의 감소로 학교가 소멸돼 가고 있는데 미흡한 대책이 없다. 도내 어느 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4명뿐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다. 체육대회도 못한다. 영어, 음악 전담교사 배치도 못한다.
미래교육 환경과는 거리가 먼 학교다. 머지않아 폐교될 학교에 투자도 할 수 없다. 학교는 친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다. 그러나 또래 친구가 없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 수요가 높고 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도시 지역에는 한 학급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이 여전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문화해야 한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첫째, 교실 혁명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학생 모두가 교실에서 스마트 학습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에듀테크에 맞는 교수법을 연구하는데 집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미래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평가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고교학점제와 진로연계 학기 등 교육 과정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도 중요하다.
'미래교육캠퍼스' 조성을 통해 전북 미래 교육의 거점이자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 체력관과 고교학점제를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일도 필요하다.

장관상 수상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전북 남원의료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긴급 구조 지원 기관 능력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가 단위 긴급 구조 종합 훈련 시 소방 안전 대책 강화 등 소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남원의료원은 지방의료원 가운데 최초로 선정됐다.
남원의료원은 재난 대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서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지원과 응급 환자 이송 등에 대한 공조 체계 구축 등 우수한 훈련 과정을 선보인 바 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 재난은 반복적인 대비 훈련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의료원의 '나누리 봉사단'은 지난해 11월 18일 관내 저소득 가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이 봉사단은 남원의료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남원의료원 임직원들은 매달 '십시일반(十匙一飯)' 모금 활동을 한 기금으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2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집수리 및 의료봉사, 나눔 봉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 가구 노인 30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했다.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남원의료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한다. 남원 출신인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한 뒤 남원시 보건소장과 전북도 보건위생과장 등을 역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일손 부족' 코로나 일선에 투입된 영국군 관계자들

12일(현지시간) 영국 브렉넬의 브렉넬 구급차 대기소에서 군 장교들이 구급차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등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들이 격리돼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투입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